

제15차 일중한 산업보건학술집담회 보고

산업보건학술집담회 한국측 간사 이 세 훈



제15차

일중한 산업보건 학술집담회가 2004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고쿠라(小倉)에 있는 Kitakyus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원래 2003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오키나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에서 시작한 SARS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학술대회가 취소되는 분위기인데다가 주최를 담당키로 한 오키나와 Ryukyu대학교의 Ariizumi Makoto교수의 갑작스런 뇌졸중까지 겹쳐서 15차 학술대회는 결국 올해로 연기되었다. 금년에는 규모로 보아 참가자 수는 230명(한국 65; 중국 78; 일본 약

90명 정도)이 조금 넘어 부산모임과 비슷한 수였으나, keynote를 포함한 전체 발표연제수는 131개로서 117개였던 부산모임에 비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Conference Center에서 수행된 학술대회과정은 물론이고 Pregathering이나 Banquet도 주최측인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많은 노력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1. 학술대회 일정

학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5월 20일

1. 직업 및 환경성 폐질환에 대한 Workshop
2. Pregathering meeting

5월 21일

1. 개회식
2. 특별강연
3. Session I~III
4. Session VII~XVI
5. Session IV~VI
6. 만찬

5월 22일

1. Conference Information
2. 중소기업 사업장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Symposium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던 Workshop은 중국 및 한국측 참가자들의 도착이 지연된 관계로 한 시간 이상 늦게 시작하였다. Workshop은 폐기종과 만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연제와 직업성 천식과 코호트 및 중피종에 관한 연구 등 두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모두 8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21일 오전 개회식에서 일본측 대표인 Okubo Toshiteru UOEH총장은 해가 갈수록 참석자수와 발표연제수 면에서 볼 때 본 학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요지의 개회사에 이어 일본 보건노동복지부의 Tsunekawa Kenji 산업안전보건국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특히 금번 학회의 개회식에서는 본 학술대회 창설에 주역을 담당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 작고하신 중국의 Liu Shijie 교수님과 일본의

Tati Masatomo 교수님에 대한 조규상 교수님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중국의 Wang Lin 교수가 중국에서의 직업성 hand-arm vibration syndrome에 대한 최신 연구, 우리나라 순천향대의 이병국 교수가 우리나라 납중독의 역사와 납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관리, 일본의 Maeda Setsuo 교수가 HAVS의 예방전략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2. 연제 발표와 포스터상

자유연제의 구연발표는 17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각 session 별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I. Occupational diseases
- II. Chemicals, exposure & monitoring
- III. Metals
- IV. Physical factors and examination methods
- V. Epidemiological studies



- VI. Recent topics
- VII. Physical factors and MSD
- VIII. Chemical hazards 1
- IX. Chemical hazards 2
- X. Health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1
- XI. Health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2
- XII. Work related diseases and environmental hazards
- XIII.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 XIV. Mental health
- XV. Organizational factors in OHS
- XVI. Recent topics in OHS

지난 14차 부산학회에서와 같이 포스터 발표도 포함시켰으며 Session VII~XVI가 포스터 발표에 해당되었다. 포스터 발표도 좌장의 진행하되 짧은 구두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 또한 지난 부산학회 때 3국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년에도 많은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앞으로 3국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 하에 포스터상을 수여하였다. 포스터



발표 평가는 각국의 Secretariat 3명과 우리나라의 조수현 교수님 등 3명을 더한 6인이 평가하였고 그 평가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그 시상명은 지난해와 같이: 1. 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 2. Best Scientific Poster Award; 3. Most Innovative Poster Award로 정하였으며 만찬석상에서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정수영 선생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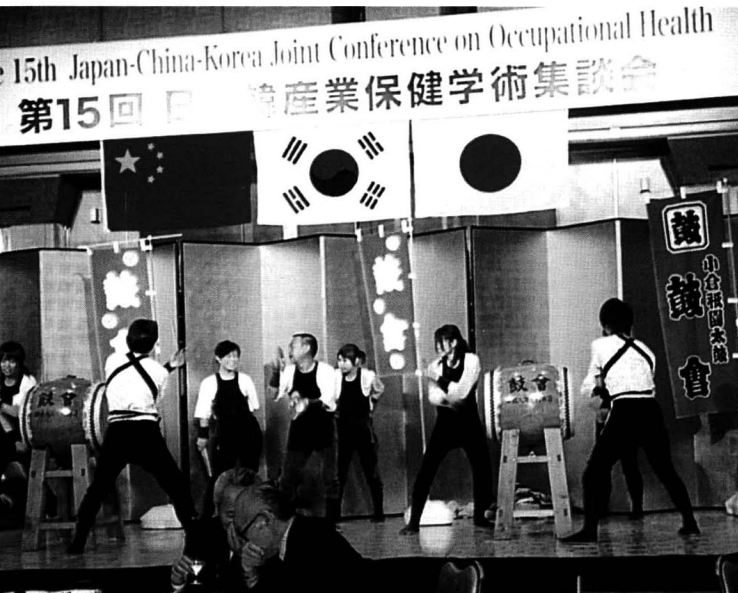
Symposium은 각국에서 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제도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보건관리제도와 영세사업장의 보건관리사업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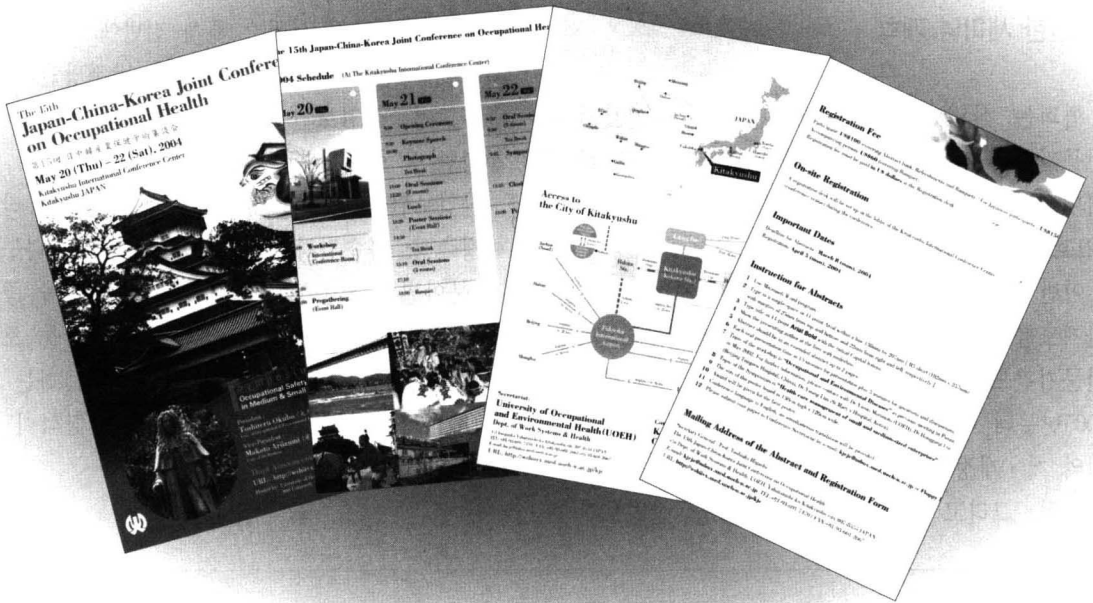
만찬장은 학회장 인근의 RIGA Royal호텔에서 성대하게 차려졌고 일본 전통공연도 있었다. 만찬이 종료된 후 전례대로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참가자들이 자국의 노래를 부르며 우의를 나눴다.

3. 운영위원회의

21일 점심시간에 3국 운영위원회의가 있었으며 그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았다.

16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는 개최국인 중국측의 의견대로 2005년 6월 2-4일에





Dalian(大連)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당일 만찬장과 22일 학회안내 Session에서 다시 소개되었다.

학회등록비는 지금까지 미화 100달러이던 것을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부터 150달러로 인상하며, 대학원생에 대한 등록비 할인의 경우는 여러 의견이 오간 끝에 주최국의 여건에 따라 그때마다 주최국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산업보건학회(ACOH)가 개최되는 해(2008, 2011 등 매 3년 간격)에는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생략하되 2005년의 경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외로 하였다.

한편 학술집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향후에는 American Industrial Hygiene

Conference & Exhibition의 일정과의 중복을 피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에서는 2012년 ICOH의 주최국 유치와 관련하여 2009년 개최결정 때와 같은 경쟁을 피하고 어느 나라이던 간에 한국과 일본 중 한 나라가 개최지로 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한국이 유치활동을 한다면 일본은 양보하고 한국을 적극 도와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5년 Dalian학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측 대표로 일해오신 이승한 교수님이 이번 학회를 끝으로 그 대표직을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신 윤임중 교수님이 맡기로 하였다. [16]